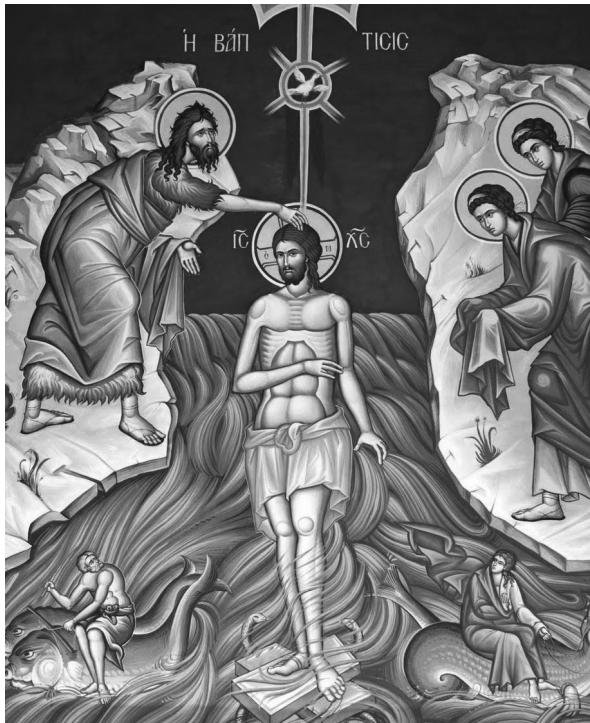




정교회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 주 예수 그리스도 신현 축일 전 주일
성 말라기아 예언자, 성 고르디오스 순교자
제 5조, 조과복음 8
성 요한 크리소스토姆 성찬예배에서
- 제 5조 부활찬양송 / 82, A 215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신현 축일 전 찬양송 / 150, B 120
 - 성당 찬양송
 - 신현 축일 전 시기송 / 150, B 121
 - 사도경 : II디모테오 4:5~8 / 150, 봉독서 650
 - 복음경 : 마르코 1:1~8 / 150, B 122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2021년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신년사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얼마 전에 마무리된 2020년 한 해는, 모두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사랑과 인내와
인간성을 시험한 깊은 위기의 해였습니다. 이 위기는 건강, 경제, 교육, 실업, 사회적
문제, 심리적 문제 등 여러 차원에서 인간의 참을성과 회복능력을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러 차원에서 지속되고 있는 이 위기는 대인 관계 수준에서 우
리의 태도와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즉,
코로나19가 유발한 이런 ‘쓰나미’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다행히도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중심이 인간이 아니
라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요한 15:5)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영향력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

(2 페이지에 계속)



습니다. 또, 더이상 자기중심적으로 믿고 생각하지 않으며, 겸손과 자기비판의 마음으로 인간의 약점과 한계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친척, 주변의 이웃들과 더 자주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병든 이들, 가난한 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과 연대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었기에,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어조로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루가 10:29)라고 더이상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느님의 선하심과 자비가 우리에게 주신 2021년 새해를 올바르게 보내면 우리는 한 해를 위기 극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전부 항상 우리의 구원에 유익하다는 굳건한 희망을 가지면, 우리는 고개를 높이 들고 마음을 굳게 다진 채, 우리 안팎에 있는 여러 종류의 악을 이겨내고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도움과 보호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우리는 좌절감, 우울함, 절망감, 두려움, 불안함에 휩싸이지 않을 것이며, 하느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투쟁을 중간에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다시 한번 더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오신, 태초부터 계시며 시초 없는 말씀이시며, 지금 막 동정녀로부터 나신 그리스도»께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확실한 희망, 위선없는 진실한 사랑»을 주시기를 간청합시다. 또한 하느님께 우리의 «행동, 일, 말과 기억들»을 축복해주시기를 간청하여,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확고한 신뢰로 «우리와 다른 이들의 온 생명을 하느님이신 그리스도께 맡깁시다.»

피시디아의 소티리오스 대주교님과 모든 성직자들, 주님 안에서 협력하는 이들과 함께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 올 한 해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족들, 우리 나라, 그리고 온 세상에 축복되고 영적으로 유익한 해가 되길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없는 사랑과 존경으로,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대주교

기도: 영적인 삶의 중요한 요소(9)

아토스의 꽃들(저자: +모세 수사)에서 발췌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모든 악한 이론과 속임수, 거짓된 상상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매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느님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보고자하는 강한 욕망은 오류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잘것없고 무능한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도록 합시다. 그리고 만

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꼭 나타나시겠다고 하면, 모든 것은 다 잘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애태우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사막에서 기도생활을 하던 한 수도자가 있었는데, 한 번은 어떤 유혹이 그에게 닥쳐왔습니다. 늘 그렇듯이 자신을 낫춘 그에게 거짓된 빛을 보는 것과 같은 유혹이 밀려왔습니다. 하느님의 빛을 보기에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그는 그 거짓된 빛을 차단하려고 자신의 얼굴을 모래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내 유혹은 사라지고, 말할 수 없는 평화가 그의 마음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냉정한 정신으로 깨어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시나이의 금욕가 널로스 성인(4-5세기)은 기도하는 중에 뱀에 물렸지만 다 끝마치기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보다도 하느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해도 입지 않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아주 많이 서두르는 것이며, 인내심이 없이 안절부절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그에 필요한 수고는 충분히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은 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모든 것이 즉시 이루어지기만 바랍니다. 씨를 뿌리기도 전에 곡식을 거두려고 합니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기적을 바라고, 환상과 계시를 기대합니다. 이런 순진한 욕망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자녀들 무리 속으로 들어온 (양의 옷을 입은) 늑대에게 이용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타나시아

주보소식

대교구

➡ 신현축일 예배 일정

2021년 1월 5일(화)

오전 9:00 ~ 10:30 – 신현축일 대시과

오후 5:00 ~ 7:30 – 신현축일 대만파,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2021년 1월 6일(수)

오전 8:45 ~ 10:00 – 신현축일 조과

오전 10:00 ~ 11:30 –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찬예배

오전 11:30 ~ 12:15 - 신현축일 대성수식

(각 지역성당의 예배시간은 각 지역성당 사무실에 문의 바랍니다.)



➡ **2021년 축일달력**

2021년 축일달력이 나왔습니다. “불멸의 약” 이란 제목으로 성체성혈성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로 성당에 오셔서 구입을 못하시는 분들은 각 성당 사무실에 요청하시면 우편으로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편요금 각자 부담) 가격은 탁상용은 5,000원, 벽걸이용은 7,000원입니다.

➡ **정교회 출판사 신간 소개 : 『교부들의 영적 금언집』**

하느님의 도움으로 『교부들의 영적 금언집』이 출판되었습니다. 요한 박용범 교우가 번역한 것으로, 이 책은 광야의 영적수련의 삶을 사신 수도사들의 삶의 여러 경험담을 수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영적 성장을 위해 가꾸어 나가야 할 덕과 강력하게 싸워 나가야 할 정욕을 정리해서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과 삶에 유익한 책으로 모두가 읽어봐야 할 영적 서적입니다.(431쪽 / 가격 15,000원 : 정교회출판사 02)364-7020)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신자총회 공고**

2021년 1월 10일 주일에 신자총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2020년도 결산과 영적사업의 결과와 2021년도 예산과 영적사업을 의논할 것입니다.

인천 성 바울로 성당

➡ **신도총회 소집안내**

2021년 1월 10일 주일 성찬예배 직후에 제 37 회기 성 바울로 성당 신도총회가 개최됨을 공고합니다. 회의 안건은

1. 2020년도 사목 사업보고 및 회계결산
2. 2021년도 사목사업계획 및 회계 예산
3. 기타

아울러 운영위원회 모임은 2021년 1월 3일 주일예배 후에 소집됩니다.

주간예식

1월 7일(목) 세례자 요한의 연관축일
오전 9시 – 축일조과 및 성찬예배

